

미 증시, 지역 은행 우려로 상승 반납 후 옐런 발언으로 재차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지역은행 우려로 상승 반납 후 옐런 발언으로 재차 상승

•미 증시는 전일 파월 연준의장과 옐런 재무장관 발언으로 인한 하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특히 달러화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BOE 통화정책 등으로 6일 연속 약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스닥이 한 때 2.5% 급등. 그러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여전히 이어진 지역은행 급락 등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반납. 다만 옐런 장관이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후 재차 반등을 주는 등 변동성 확대 후 상승 마감(다우 +0.23%, 나스닥 +1.01%, S&P500 +0.30%, 러셀2000 -0.41%)

특징 종목: 기술주 강세 Vs. 금융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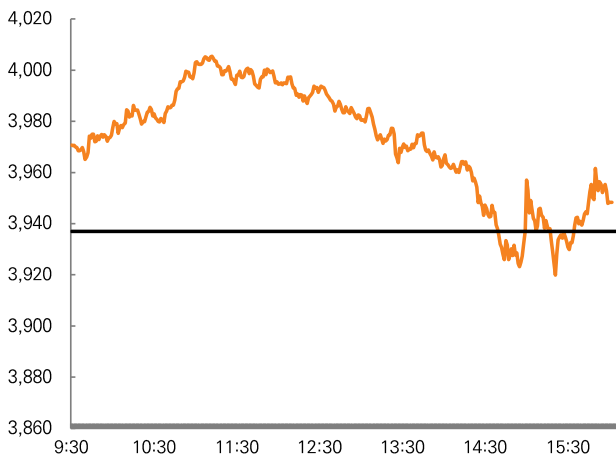
•엔비디아(+2.73%)는 니드햄이 GTC를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목표주가를 27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임. AMD(+2.77%) 등도 동반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론(+5.45%)이 반도체 업황 바닥 신호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7% 상승. 넷플릭스(+9.01%)는 광고를 탑재한 가격 인하 정책이 2개월만에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는 소식에 급등. 알파벳(+2.16%), 메타(+2.24%), 스냅(+3.08%)은 틱톡 CEO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미 정부가 틱톡 판매에 '단호히 반대'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기술주 중심 개별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는 1.65%, MSCI 신흥 지수 ETF는 1.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3.9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나스닥이 한 때 2.5% 급등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어진 지역 은행 리스크로 인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전환 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이는 향후 경기 침체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GTC 컨퍼런스 이후 여러 투자은행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로 마이크론이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주요 이슈 소화 후 4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가 진행 전망.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424.48	+0.31	상해종합	3,286.65	+0.64
KOSDAQ	812.19	-0.15	홍콩항생	20,049.64	+2.34
DOW	32,105.25	+0.23	베트남	1,045.10	+0.44
NASDAQ	11,787.40	+1.01	유로스톡스 50	4,207.14	+0.27
S&P 500	3,948.72	+0.30	영국	7,499.60	-0.89
캐나다	19,459.92	-0.37	독일	15,210.39	-0.04
일본	27,419.61	-0.17	프랑스	7,139.25	+0.1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BOE 통화정책회의 ② 지역 은행 불안 지속

미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영국의 BOE 또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해 4.25%로 발표. 다만, 만장일치로 인상을 했던 연준과 달리 BOE는 7:2로 2명의 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점이 다른 모습. 영국 경제를 감안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었으나,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이후 금리인상의 정당성이 높아졌었음.

한편, BOE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2분기에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 연장과 도매 가격 하락으로 2월 예측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베일리 BOE 총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인플레이션 정점의 징후가 있고 여름에는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연준에 이어 BOE도 금리인상 기조 종료 가능성을 높임.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BOE 베일리 총재도 2008년 금융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영국 은행들은 훨씬 더 강하다고 주장. 더불어 영국 은행 시스템은 고금리 기간을 포함해 경제를 지원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해 은행 시스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제어. 그런 가운데 영국이 불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영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

이러한 BOE의 금리인상과 베일리 총재의 발언으로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 또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위원인 Knot 총재가 여전히 5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금리인상 기조 지속을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이러한 영향으로 달러화는 6일 연속 약세를 보여 미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게 만든 요인. 국제 금리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종료에 대한 기대로 하락한 점도 이러한 영향에 힘을 더함

전일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일부 언론을 통해 재무부가 전체 예금 보증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옐런 재무장관도 이를 시사했는데 ‘어떤 논의도 없었다’ 라고 발표한 것. 물론, 전체 예금액이 18조 달러에 달한 가운데 연방예금보험 공사 기금이 1,250억 달러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없었지만, 옐런 장관의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발표는 시장에 실망감을 줬었음. 이 발언으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지역은행들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 심리를 자극

그렇지만, 전일 옐런 장관은 만약 대규모 자금인출이 지속되는 등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해 완전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를 한 부분도 있음. 실제 오늘 옐런 장관은 ‘정당하다면’ 추가적인 예금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예금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 재무부는 은행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해 장 마감 앞두고 지수 상승을 견인

한편, 파월 연준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주장했으며, 베일리 BOE 총재도 영국의 은행들은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며 관련 우려 확산 가능성을 제어. 실제 투자은행 파이퍼센들러는 전일 문제되었던 팩웨스트 뱅크(-8.55%)에 대해 현금 보유량이 미보장 예금보다 많아 실리콘밸리 뱅크와 다르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 최근 시장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이슈가 이러한 발표 등을 감안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



기술주 강세 Vs. 금융주 약세

엔비디아(+2.73%)는 니드햄이 GTC를 고려해 투자 의견 매수 유지와 목표주가를 27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임. AMD(+2.77%) 등도 동반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5.45%)이 반도체 업황 바닥 신호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7% 상승. 넷플릭스(+9.01%)는 광고를 탑재한 가격 인하 정책이 2개월만에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는 소식에 급등. 알파벳(+2.16%), 메타(+2.24%), 스냅(+3.08%)은 틱톡 CEO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미 정부가 틱톡 판매에 '단호히 반대'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건설업체인 KB홀딩스(+7.53%)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봄 시즌 이후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IT컨설팅 및 서비스업체인 액센추어(+7.26%)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가운데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식품 제조업체인 제너럴 밀스(+2.85%)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상승. 반려동물 용품 유통업체인 추이(-7.49%)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활성 고객수 감소 소식에 하락.

코인베이스(-14.05%)는 웰스 노티스 즉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 소송 제기예 앞서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통보받자 급락. 블록체인 결제업체인 블록(-14.82%)은 힌데버그 리서치가 이용자 데이터를 크게 부풀렸다고 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하자 급락. 팩웨스트뱅크(-8.55%), 퍼스트 리퍼블릭(-6.00%) 등과 BOA(-2.42%) 등 금융주는 불안 심리로 하락 지속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48	대형 가치주 ETF (IVE)	-0.05
클린테크 ETF (CTEC)	+1.33	중형 가치주 ETF (IWS)	-0.58
소매업체 ETF (XLY)	-0.11	소형 가치주 ETF (IWN)	-0.81
온라인소매 ETF (EBIZ)	+1.34	대형 성장주 ETF (VUG)	+1.00
미국 인프라 ETF (PAVE)	-0.37	중형 성장주 ETF (IWP)	+0.14
핀테크 ETF (FINX)	-1.39	소형 성장주 ETF (IWO)	-0.0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7
클라우드 ETF (CLOU)	+2.02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0.26
사이버보안 ETF (BUG)	+1.86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8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89	미국 국채 ETF (IEF)	+0.57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58	하이일드 ETF (JNK)	-0.33
바이오섹터 ETF (IBB)	+0.90	신중국 채권 ETF (EMBD)	+0.35
로봇&AI ETF (BOTZ)	+0.91	물가연동채 ETF (TIP)	+0.18
반도체 ETF (SMH)	+2.6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188.27	+1.83	+2.64	+7.65
IT	2,545.76	+1.65	+1.68	+5.41
경기소비재	1,106.39	-0.05	-0.46	-2.54
소재	480.17	-0.14	-0.26	-5.48
헬스케어	1,465.45	-0.18	-1.09	-3.26
산업재	817.61	-0.23	-1.31	-4.03
필수소비재	749.13	-0.43	-0.80	-1.86
부동산	217.66	-0.62	-6.03	-10.77
금융	515.92	-0.73	-2.74	-12.82
유틸리티	323.73	-1.01	-5.12	-4.01
에너지	596.32	-1.36	+0.44	-7.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기술주 중심 개별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는 1.65%, MSCI 신흥 지수 ETF는 1.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3.9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연준이 25bp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금리인상 기초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에도 열린 재무장관의 전면적인 예금 보호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자 약세를 보인 미 증시 여파로 하락 출발. 그렇지만, 금리인상 기초 종료 기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달러/원 환율이 29.4원이나 급락하는 등 원화 강세가 높아지자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로 인해 상승.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KOSPI는 0.31% 상승. 다만, 2차 전자 업종의 장 마감 앞두고 변동성을 키워 KOSDAQ은 0.15%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나스닥이 한 때 2.5% 급등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어진 지역 은행 리스크로 인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전환 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이는 향후 경기 침체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GTC 컨퍼런스 이후 여러 투자은행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로 마이크론이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더 나아가 미국 지역은행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지만,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주장한 파월 연준의장과 열린 재무장관의 발언 등으로 관련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제한된다는 점도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주요 이슈 소화 후 4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견고하고 주택 지표 개선 기대 확대

미국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19.2만 건이나 예상치인 19.5만 건을 하회한 19.1만 건을 기록. 연속 신청건수는 168만건에서 169.4만 건으로 증가

미국 2월 신규주택 판매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63.3만 건을 상회한 64만 건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64.5만 건을 하회. 판매 중간가격은 42만 6,500달러에서 43만 8,200달러로 상승.

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0.23이나 예상치인 0.18을 하회한 -0.19로 둔화. 3개월 평균은 -0.26에서 -0.13으로 개선. 특히 확산지수가 -0.07에서 +0.02로 개선

유로존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9.00이나 예상치인 -18.2를 하회한 -19.2로 발표.



국채 금리,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 종료 기대로 하락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한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유럽 천연가스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등. 다만, 유럽 전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다는 점과 유럽 전체 천연가스 재고율이 56%를 기록하는 등 예년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 심리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장중에 약세폭이 확대. 특히 BOE가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ECB는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위원들의 발언으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점도 달러화 약세 요인. 그렇지만, 6일 연속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장 후반 지역은행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되돌림이 유입되며 강세로 전환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물론, 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금리인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인상 기조 종료와 더불어 은행 리스크로 인한 경기 둔화 가속화 부담도 금리 하락 요인.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낙폭이 컸음.

금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장중 달러화가 6일 연속 약세를 보이자 상승. 곡물은 장중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달러화가 강세 전환하자 하락. 특히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가 높아지자 대 중국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하락 전환 요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3%, 철근은 0.97%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96	-2.27	+1.12	Dollar Index	102.572	+0.22	-1.77
브렌트유	75.91	-1.83	+0.79	EUR/USD	1.0837	-0.18	+2.14
천연가스	2.15	-1.11	-14.60	USD/JPY	130.85	-0.45	-2.16
금	2,013.30	+2.44	+3.86	GBP/USD	1.2286	+0.15	+1.46
은	23.26	+1.88	+7.02	USD/CHF	0.9163	-0.12	-1.40
알루미늄	2,326.00	+1.73	+2.58	AUD/USD	0.6685	0.00	+0.44
전기동	9,031.00	+1.60	+6.02	USD/CAD	1.3713	-0.13	-0.06
아연	2,907.00	+1.43	+1.73	USD/RUB	76.0517	-1.27	-1.93
옥수수	631.75	-0.43	-0.32	USD/BRL	5.2909	+0.99	+1.14
밀	662.00	-0.75	-5.79	USD/CNH	6.8302	-0.44	-0.94
대두	1,419.50	-2.11	-4.93	USD/KRW	1,278.30	-2.25	-2.64
커피	174.30	-2.08	-3.19	USD/KRW NDF1M	1,283.93	-0.96	-1.1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10	-2.43	-16.72	스페인	3.246	-12.10	-13.70
한국	3.272	+0.70	-12.80	포르투갈	3.067	-11.70	-14.50
일본	0.323	-0.50	+0.80	그리스	4.147	-6.80	-14.60
독일	2.195	-13.30	-9.50	이탈리아	4.066	-10.40	-12.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